

# 민주 “내란 사죄 먼저 하라” vs 국힘 “민주, 장기집권용 개헌”

정치권, 개헌 논쟁 재점화

민주 “헌재를 독재 비유, 후안무치”  
국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하자”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이후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개헌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구상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장기집권 의도가 깔려있다”고 평가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 개헌 공약은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라며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우월리를 계산한 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독재무민의 단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맞춤형 폼수 장기집권 플랜이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의 개헌안은 매우 불순하다”며 “연임제로 해서 대리인에게 맡겨놨다가 돌아와서 하고, 이게 전형적인 러시아식이고 권력의 영구 장악을 의도한 개헌안”이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공동으로 겨냥했다.

안 위원장은 “87년 체제를 끝내고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권력축소형 개헌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음 토론회에서 국민 앞에 정식으로 개헌을 약속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에 대한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헌법 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사죄의 맨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하면서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고,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탄핵 판결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현재의 탄핵 인용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나”라고 덧붙였다.

또 “이런 자유민주주의 도전 세력들을 이번 선거에서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고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고, 제7공화국 시대를 열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광주 방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복합쇼핑몰 예정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이재명 50%대 ‘1강 독주’

리얼미터 대선 지지율...김문수 35.6%·이준석 8.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50%대의 지지율에 잇따라 안착하면서 ‘1강’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후반대에 머물렀던 이 후보 지지율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50%를 돌파, 조사 때마다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19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5.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7%로 나타났다.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9% 포인트 하락했지만, 과반 이상을 넘었다.

이 후보는 리얼미터의 4월 4주 조사(무선자동 응답 100%, 4월23~25일)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48.5%를 기록했고, 5월 첫째주 조사(무선자동응답 100%, 4월 30일~5월 2일)에서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와의 3자 가상대결에서 46.6%로 과반을 넘어선다는 못했지만, 지난 주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최근 진행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주 연속 5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 지지 후보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이 후보는 51% 지지율을 기록했다.

또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무선자동응답 100%, 지난 12~13일)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51%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이준석 후보 모두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를 넘는 격차로 앞서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의 결집력이 매우 높으며 특히 중도층에서도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새 정부 출범 전 알박기 인사 하지말라”

박찬대 민주 선대위원장, 이주호 권한대행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모든 부처의 인사 동결을 지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부처로 복귀하면서 대거 승진하거나 핵심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은 6월 4일 전까지 (부처로) 복귀시키고, 복귀자들은 주요 보직에 배치되거나 해외 발령을 낸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보은성·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12·3 내란의 비밀을 아는 공무원들에게 ‘입찰’ 인사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각 수석실에 서류를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개인용 컴퓨터도 모두 초기화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면 6월 4일에

취임하는 새 대통령은 사람도, 자료도 없는 빈 강통인 대통령실을 인수·인계받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이런 의혹이) 즉각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부처 복귀는 파견 기간 만료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정상적·일상적 절차”라면서 “전임 정부도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인계인수 인력을 제외하고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복귀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치는 원소속 부처에서 인사 관련 규정과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대통령실 권한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및 전임 정부 인계 관례에 근거해 전자기록물 이관이 완료된 상황이고, 대통령실 개인용 컴퓨터 초기화는 개인 PC 잔존 전자기록물 정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인수 인계에 필요한 자료는 업무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민주, 이재명 후보 겨냥 네거티브 법적조치

‘커피 원가 120원’ 공방...김용태 허위사실 공표혐의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허위·왜곡에 대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민주당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9일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롯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폼수까지 쓰는 작자’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고발했다.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도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언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반면 이 후보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삼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후보로서 굳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후보에 대한 공세는 당이 법적 대응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식선거법 개정 추진과는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 (1차)**

본 회사는 2025년 4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5년 5월 13일자로 해산통고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20일

주식회사 엔제이랩  
광주광역시 북구 정단과로 333,  
벤처지원센터 별관 104호(대촌동, 광주테크로파크)  
청산인 김형열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정지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탄발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융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중 앙**

**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